

# 대학생의 응급처치 지식수준 실태 조사

권혜란\* · 정지연\*\*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를 포함하여 하루 약 905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오늘날 사고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불구 혹은 생명을 잃는 위험으로부터 누구도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 없으며 더욱이 과학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더 큰 사고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sup>1)</sup>. 돌발적인 사고나 질환으로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현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는 사망률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장애정도를 경감시킬 수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현장에서부터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조직적으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며, 후송중에도 계속적으로 처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어 있다<sup>2,3,4)</sup>. 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안전에 관한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사고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은 국민적 공통교양 과정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sup>5)</sup>. 특히 학생들에게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하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안전 교육과 안전 관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안전교육 내용의 하나로 다루어지는 응급처치의 내용은 학교 보건교육에 관련된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다. 학교 보건교육은 학교내에서의 사고예방 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했을 때 직장에서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다.

학교 보건교육의 목적은 안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갖도록 학생들의 생활방법을 교육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내외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원리와 기술을 숙달시키는데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을 학교 안전보건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지만<sup>6,7)</sup>, 기존의 대학교육과정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과목으로 독립하여 교육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sup>3)</sup>, 특히 비보건계열의 학과에서 안전교육과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 또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강화하고자 먼저 광주지역 비보건계열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응급처치 지식수준을 조사하였다.

### 2. 연구목적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과 응급처치 지식수준을 파악한다.

\* 광주보건대학 응급구조과

\*\* 동아인재대 응급구조과

2. 응급처치 관련 변수에 따른 안전의식과 응급 처치 지식수준을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 전문대학중 비보건 계열 학과에 재학중인 남녀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작성법을 설명한 후 수집을 요청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140부중, 설문에 응답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합한 16부를 제외한 12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문항, 안전의식 20문항, 응급처치 지식 30문항, 응급처치법 교육의 필요성 4문항, 총 6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의식의 각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응급처치 지식에 관한 문항들은 각각 Likert 3점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C+를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자료분석 방법은 일반적 특성별 지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ANOVA를 수행하였고, 유의성 검증은  $\chi^2$ -test로 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논의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12.9%보다 여학생이 87.1%로 월등히 많았으며, 1학년 학생이 53.2%, 2학

년 46.8%순이었다. 형제자매수는 3명 이상 54.0%, 2명이 23.4%, 1명이 19.4%, 없다 3.2% 순이었으며, 현거주지 별로는 대도시 지역이 48.4%로 가장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24)	
일반적특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성 별	남	16	12.9
	여	108	87.1
학년	1학년	66	53.2
	2학년	58	46.8
형제자매수	무	4	3.2
	1명	24	19.4
	2명	29	23.4
	3명이상	67	54.0
현거주지	대도시	60	48.4
	중소도시	50	40.3
	읍·면지역	14	11.3
어머니의 교육정도	초졸	21	16.9
	중졸	40	32.3
	고졸	57	46.0
	대졸이상	6	4.8
아버지의 교육정도	초졸	17	13.7
	중졸	27	21.8
	고졸	61	49.2
	대졸이상	19	15.3
보호자 직업	농·축산업	28	22.6
	행정사무직	29	23.4
	판매서비스직	67	54.0
종교	무교	57	46.0
	불교	15	12.1
	기독교	40	32.3
	천주교	12	9.7
경제상태	상	3	2.4
	중	93	75.0
	하	28	22.6
주거형태	일반	59	47.6
	상가	4	3.2
	다가구	4	3.2
	아파트	57	46.0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중소도시 40.3%, 읍면 지역 11.3% 순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 46.0%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졸업 32.3%, 초등학교 졸업 16.9%, 대학졸업이상 4.8% 순이었고,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어머니와 같은 결과로 고등학교 졸업이 49.2%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졸업 21.8%, 대학졸업이상 15.3%, 초등학교 졸업 13.7%순으로 어머니의 교육정도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판매서비스직 54.0%, 행정사무직 23.4%, 농축산업 22.6% 순이었으며, 종교는 무교가 46.0%, 기독교 32.3%, 불교 12.1%, 천주교 9.7% 순이었다. 가정의 경제적인 상태는 자가판단으로 중위권이 75.0%로 월등히 높았으며, 하위권 22.6%, 상위권 2.4% 순이었다. 그리고 주거 형태별로는 일반주택이 47.6%와 아파트 46.0%로 거의 동수를 나타냈고, 상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3.2% 동수로 나타났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 필요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에 대한 필요성은 표 2와 같다.

응급처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경우는 있다가 87.5%로 없다 1.5%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형제자매수( $\chi^2=7.482$ ,  $p=.048$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응급처치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경용<sup>8)</sup>의 연구에서 성별과 보호자의 직업별로 유의성을 나타낸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87.5%로 여학생 84.3%보다 높았고, 학년별로는 2학년이 89.7%로 1학년 80.3%보다 높았다. 형제자매수가 없는 사람의 경우 경험이 있다가 100%로 가장 높았으며, 2명 96.6%, 3명 이상이 83.6%, 1명 70.8%순이었다. 부모의 교육정도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초등학교 졸업에서 있다가 100%로 가장 높았으며, 보호자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이 88.1%, 농

축산업 85.7%, 행정사무직 75.9% 순이었다. 경제상태는 하위권 85.7%, 중위권 84.9%, 상위권 66.7%순이었고, 주거형태에서는 상가주택이 경험 이 있다가 100%로 가장 높았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법 교육습득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법 교육 습득원에 대한 조사는 표 3과 같다.

응급처치법 교육의 습득원은 학교가 46.8%로 가장 높았고, 배운적 없음 23.4%, 매스컴 22.6%, 독학 7.3% 순이었다. 특성별로 보면 성별( $\chi^2=30.230$ ,  $p=.000$ ), 학년( $\chi^2=10.821$ ,  $p=.013$ ), 어머니의 교육정도( $\chi^2=18.932$ ,  $p=.02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배운적 없음이 높은 이유로 현 대학에서는 전체학과의 교과과정에 응급처치법에 대한 교육내용이 없고, 특히 비보건계열학과에서는 응급처치법 교육의 기회가 없음을 판단할 수 있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 경우 학교가 52.8%로 매우 높았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학교가 50.0%, 배운적 없음도 30.3%이었다.

현거주지 별로는 읍면지역이 학교가 50.0%로 가장 높았다.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대학졸업이상에서 매스컴이 66.7%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에서는 학교가 57.9%, 초등학교졸업중 학교가 47.6% 순이었고,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초등학교졸업 52.9%와 대학졸업이상 52.6%로 학교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종교에서는 천주교가 학교 41.7%, 매스컴 41.7%로 동수로 나타났고, 경제상태에서 상위권이 학교가 66.7%로 가장 높았으며 중위권 46.2%와 하위권 46.4%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법에 대한 정보 습득원에 대한 정보 습득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법에 대한 정보 습득원은 표 4와 같다.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 필요성

일반적특성	구분	계 100.0(124)	있다 84.7(105)	없다 15.3(19)	$\chi^2(p)$
성별	남	16	87.5	12.5	.113(.737)
	여	108	84.3	15.7	
학년	1학년	66	80.3	19.7	2.081(.149)
	2학년	58	89.7	10.3	
형제자매수	무	4	100.0	0.0	7.482(.048)*
	1명	24	70.8	29.2	
	2명	29	96.6	3.4	
	3명이상	67	83.6	16.4	
현거주지	대도시	60	83.3	16.7	.163(.922)
	중소도시	50	86.0	14.0	
	읍면지역	14	85.7	14.3	
어머니의 교육정도	초졸	21	100.0	0.0	6.255(.100)
	중졸	40	80.0	20.0	
	고졸	57	80.7	19.3	
	대졸이상	6	100.0	0.0	
아버지의 교육정도	초졸	17	100.0	0.0	3.637(.303)
	중졸	27	81.5	18.5	
	고졸	61	82.0	18.0	
	대졸이상	19	84.2	15.8	
보호자 직업	농축산	28	85.7	14.3	2.351(.309)
	행정사무	29	75.9	24.1	
	판매서비스	67	88.1	11.9	
종교	무교	57	84.2	15.8	1.167(.761)
	불교	15	86.7	13.3	
	기독교	40	87.5	12.5	
	천주교	12	75.0	25.0	
경제상태	상	3	66.7	33.3	.778(.678)
	중	93	84.9	15.1	
	하	28	85.7	14.3	
주거형태	일반	59	81.4	18.6	5.943(.114)
	상가	4	100.0	0.0	
	다가구	4	50.0	50.0	
	아파트	57	89.5	10.5	

\*: p &lt; 0.05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법 교육습득원

일반적특성	구분	계	학교	매스컴	독학	배운적없음	$\chi^2(p)$
		100.0(124)	46.8(58)	22.6(28)	7.3(9)	23.4(29)	
성별	남	16	6.3	31.3	37.5	25.0	*** 30.230(.000)
	여	108	52.8	21.3	2.8	23.1	
학년	1학년	66	50.0	18.2	1.5	30.3	10.821(.013)*
	2학년	58	43.1	27.6	13.8	15.5	
형제자매수	1명	4	75.0	0.0	0.0	25.0	7.840(.550)
	2명	24	45.8	16.7	4.2	33.3	
	3명	29	44.8	20.7	3.4	31.0	
	4명이상	67	46.3	26.9	10.4	16.4	
현거주지	대도시	60	48.3	20.0	8.3	23.3	4.403(.622)
	중소도시	50	44.0	24.0	4.0	28.0	
	읍면지역	14	50.0	28.6	14.3	7.1	
어머니의 교육정도	초졸	21	47.6	23.8	14.3	14.3	18.932(.026)*
	중졸	40	32.5	20.0	7.5	40.0	
	고졸	57	57.9	19.3	5.3	17.5	
	대졸이상	6	33.3	66.7	0.0	0.0	
아버지의 교육정도	초졸	17	52.9	23.5	11.8	11.8	10.531(.309)
	중졸	27	37.0	11.1	14.8	37.0	
	고졸	61	47.5	26.2	3.3	23.0	
	대졸이상	19	52.6	26.3	5.3	15.8	
보호자 직업	농·축산	28	32.1	25.0	14.3	28.6	6.368(.383)
	판매서비스	29	51.7	24.1	0.0	24.1	
	행정사무	67	50.7	20.9	7.5	20.9	
종교	무교	57	47.4	15.8	8.8	28.1	8.052(.529)
	불교	15	40.0	20.0	13.3	26.7	
	기독교	40	50.0	27.5	2.5	20.0	
	천주교	12	41.7	41.7	8.3	8.3	
경제상태	상	3	66.7	33.3	0.0	0.0	1.393(.966)
	중	93	46.2	22.6	7.5	23.7	
	하	28	46.4	21.4	7.1	25.0	
주거형태	일반	59	47.5	20.3	8.5	23.7	4.563(.871)
	상가	4	75.0	0.0	0.0	25.0	
	다가구	4	25.0	25.0	0.0	50.0	
	아파트	57	45.6	26.3	7.0	21.1	

\*: p < 0.05, \*\*\*: p < 0.001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법에 대한 정보습득원

일반적특성	구분	계	TV	신문	잡지	기타	$\chi^2(p)$
		100.0(124)	46.8(58)	7.3(9)	3.2(4)	42.7(53)	
성별	남	16	31.3	6.3	6.3	56.3	2.277(.517)
	여	108	49.1	7.4	2.8	40.7	
학년	1학년	66	45.5	6.1	1.5	47.0	2.201(.532)
	2학년	58	48.3	8.6	5.2	37.9	
형제자매수	무	4	50.0	0.0	0.0	50.0	8.764(.459)
	1명	24	54.2	0.0	4.2	41.7	
	2명	29	51.7	0.0	3.4	44.8	
	3명이상	67	41.8	13.4	3.0	41.8	
현거주지	대도시	60	45.0	8.3	5.0	41.7	3.459(.749)
	중소도시	50	48.0	6.0	0.0	46.0	
	읍면지역	14	50.0	7.1	7.1	35.7	
어머니의 교육정도	초졸	21	47.6	9.5	0.0	42.9	6.056(.734)
	중졸	40	45.0	2.5	2.5	50.0	
	고졸	57	45.6	8.8	5.3	40.4	
	대졸이상	6	66.7	16.7	0.0	16.7	
아버지의 교육정도	초졸	17	47.1	5.9	0.0	47.1	13.298(.150)
	중졸	27	29.6	3.7	3.7	63.0	
	고졸	61	57.4	9.8	4.9	27.9	
	대졸이상	19	36.8	5.3	0.0	57.9	
보호자 직업	농축산	28	46.4	3.6	3.6	46.4	2.392(.880)
	판매서비스	29	51.7	6.9	0.0	41.4	
	행정사무	67	44.8	9.0	4.5	41.8	
종교	무교	57	45.6	5.3	0.0	49.1	12.804(.172)
	불교	15	53.3	0.0	6.7	40.0	
	기독교	40	50.0	15.0	5.0	30.0	
	천주교	12	33.3	0.0	8.3	58.3	
경제상태	상	3	33.3	0.0	33.3	33.3	10.459(.107)
	중	93	46.2	6.5	3.2	44.1	
	하	28	50.0	10.7	0.0	39.3	
주거형태	일반	59	42.4	6.8	1.7	49.2	5.992(.741)
	상가	4	50.0	0.0	0.0	50.0	
	다가구	4	25.0	25.0	0.0	50.0	
	아파트	57	52.6	7.0	5.3	35.1	

응급처치법 정보의 습득원은 TV가 46.8%로 가장 높았고, 기타 42.7%, 신문 7.3%, 잡지 3.2% 순이었다. 대상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기타가 56.3%로 여학생의 경우 TV 49.1%보다 높았다. 이는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 기간중에 습득한 경우가 많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기타가 47.0%, TV 45.5%, 신문 6.1%, 잡지 1.5% 순이었으며, 형제자매수에서는 무가 TV와 기타에서 50%, 3명이상이 TV와 기타 41.8%로 동수를 나타냈고, 현거주지는 읍면지역에서 TV가 50%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35.7%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대학졸업이상에서 TV가 66.7%로 가장 높았고,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중학교졸업에서 기타가 63.0%로 가장 높았다. 보호자의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에서 TV가 51.7%로 가장 높았으며, 종교에서는 천주교가 기타 58.3%, 불교는 TV 53.3%, 기독교 TV 50.0%, 무교 기타가 49.1% 순이었다. 경제상태는 하위권에서 TV가 50.0%로 가장 높았으며, 주거형태 별로는 아파트에서 TV 52.6%로 가장 높았다.

##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법 교육의 가장 적절한 시기에 대한 견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법 교육의 가장 적절한 시기에 대한 견해는 표 5와 같다. 응급처치법 교육의 가장 적절한 시기에 대한 견해는 초등학교에서 41.9%로 가장 높았고, 유치원 29.0%, 중학교 21.0%, 고등학교 8.1% 순이었다. 대상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chi^2=9.689$ ,  $p=.021$ ), 학년( $\chi^2=19.661$ ,  $p=.000$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에서 초등학교 43.5%, 유치원 31.5% 순이었으며, 남학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31.3% 동수로 나타났다. 1학년이 초등학교 51.5%로 가장 높았고, 2학년 유치원 48.3%, 초등학교 31.0%, 중학교 15.5%, 고등학교 5.2% 순이었다. 형제자매수 별로는 2명에서 초등학교 44.8%, 유치원 37.9%로 높게 나타났고, 현거주지는 중소도시에서 초등학교가 52.0%로 가장 높았다. 어머니

의 교육정도는 대학졸업이상에서 유치원 66.7%가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에서 초등학교가 49.2%로 가장 높았다. 보호자의 직업은 행정사무직에서 초등학교 43.3%, 농축산업 42.9%, 판매서비스직 37.9% 순이었으며, 종교별로는 초등학교가 불교 46.7%, 무교 43.9%, 천주교 41.7%, 기독교 37.5% 순이었다. 경제상태로는 상위권에서 유치원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형태 별로는 상가주택에서 초등학교가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에 대한 지식수준 점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에 대한 지식수준 점수는 표 6과 같다.

안전의식에 대한 지식수준 점수는 Likert 5점 척도로 100점 만점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71.58 \pm 12.05$ 이었으며, 60점이하를 하위권, 61점에서 79점까지 중위권, 80점 이상을 상위권으로 분석한 결과 중위권이 53.2%로 가장 높았으며, 하위권 29.8%, 상위권 16.9% 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현거주지( $F$  or  $t=3.894$ ,  $p=.023$ )에서만 유의성이 있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72.20 \pm 11.66$ 으로 남자보다 높았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72.32 \pm 12.71$ 로 2학년보다 높았으며 현거주지 별로는 대도시  $74.10 \pm 10.94$ , 읍면지역  $73.64 \pm 14.88$ , 중소도시  $68.00 \pm 11.82$  순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정도로는  $80.66 \pm 11.32$ ,  $74.47 \pm 10.22$ 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안전의식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보호자의 직업별로는 행정사무직이  $72.11 \pm 11.22$ 로 가장 높았고, 농축산업이  $70.71 \pm 13.63$ 으로 가장 낮았다. 종교는 천주교  $73.66 \pm 13.22$ 로 높았고, 경제상태는 중위권이  $72.75 \pm 12.04$ 로 주거형태는 상가주택이  $72.25 \pm 12.44$ 로 다른 주거 형태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법 교육의 가장 적절한 시기에 대한 견해

일반적특성	구분	계 100.0(124)	유치원 29.0(36)	초등학교 41.9(52)	중학교 21.0(26)	고등학교 8.1(10)	$\chi^2(p)$
성별	남	16	12.5	31.3	31.3	25.0	9.689(.021)*
	여	108	31.5	43.5	19.4	5.6	
학년	1학년	66	12.1	51.5	25.8	10.6	19.661(.000)***
	2학년	58	48.3	31.0	15.5	5.2	
형제자매수	무	4	25.0	50.0	0.0	25.0	10.696(.297)
	1명	24	25.0	37.5	37.5	0.0	
	2명	29	37.9	44.8	10.3	6.9	
	3명이상	67	26.9	41.8	20.9	10.4	
현거주지	대도시	60	35.0	33.3	23.3	8.3	6.359(.384)
	중소도시	50	2.0	52.0	16.0	10.0	
	읍면지역	14	28.6	42.9	28.6	0.0	
어머니의 교육정도	초졸	21	23.8	42.9	28.6	4.8	6.364(.703)
	중졸	40	30.0	45.0	17.5	7.5	
	고졸	57	26.3	42.1	21.1	10.5	
	대졸이상	6	66.7	16.7	16.7	0.0	
아버지의 교육정도	초졸	17	17.6	47.1	29.4	5.9	12.389(.192)
	중졸	27	33.3	44.4	14.8	7.4	
	고졸	61	27.9	49.2	16.4	6.6	
	대졸이상	19	36.8	10.5	36.8	15.8	
보호자직업	농·축산	28	32.1	42.9	17.9	7.1	2.039(.916)
	판매서비스	29	27.6	37.9	20.7	13.8	
	행정사무	67	28.4	43.3	22.4	6.0	
종교	무교	57	26.3	43.9	17.5	12.3	4.189(.899)
	불교	15	26.7	46.7	20.0	6.7	
	기독교	40	32.5	37.5	25.0	5.0	
	천주교	12	33.3	41.7	25.0	0.0	
경제상태	상	3	66.7	33.3	0.0	0.0	4.910(.555)
	중	93	31.2	41.9	19.4	7.5	
	하	28	17.9	42.9	28.6	10.7	
주거형태	일반	59	33.9	33.9	22.0	10.2	7.372(.598)
	상가	4	25.0	75.0	0.0	0.0	
	다가구	4	25.0	25.0	25.0	25.0	
	아파트	57	24.6	49.1	21.1	5.3	

\*: p &lt; 0.05, \*\*\*: p &lt; 0.001

표 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에 대한 지식수준 점수

일반적특성	구 분	M±S.D	F or t (p)	하	중	상	계	$\chi^2(p)$
				29.8(37) <60	53.2(66) 61-79	16.9(21) 80 <	100.0 (124)	
성별	남	67.44±14.19	-1.483 (.141)	37.5	37.5	25.0	16	3.324(.190)
	여	72.20±11.66		18.5	56.5	25.0	108	
학년	1학년	72.32±12.71	.717 (.475)	21.2	51.5	27.3	66	.461(.794)
	2학년	70.76±11.33		20.7	56.9	22.4	58	
형제 자매수	무	71.25±11.52	.107 (.956)	0.0	75.0	25.0	4	4.078(.666)
	1명	72.70±9.68		12.5	66.7	20.8	24	
	2명	70.82±11.58		20.7	55.2	24.1	29	
	3명이상	71.53±13.21		25.4	47.8	26.9	67	
현거주지	대도시	74.10±10.94	3.894 (.023)*	15.0	55.0	30.0	60	5.432(.246)
	중소도시	68.00±11.82		28.0	56.0	16.0	50	
	읍면지역	73.64±14.88		21.4	42.9	35.7	14	
어머니의 교육정도	초졸	72.33±10.86	1.613 (.190)	14.3	57.1	28.6	21	6.578(.362)
	중졸	69.45±11.09		22.5	62.5	15.0	40	
	고졸	71.85±12.94		24.6	47.4	28.1	57	
	대졸이상	80.66±11.32		0.0	50.0	50.0	6	
아버지의 교육정도	초졸	71.29±11.31	.765 (.516)	11.8	58.8	29.4	17	1.770(.940)
	중졸	69.07±12.44		25.9	51.9	22.2	27	
	고졸	71.88±12.64		23.0	52.5	24.6	61	
	대졸이상	74.47±10.22		15.8	57.9	26.3	19	
보호자 직업	농축산	70.71±13.63	.151 (.860)	21.4	53.6	25.0	28	3.672(.452)
	판매서비스	71.20±12.67		13.8	69.0	17.2	29	
	행정사무	72.11±11.22		23.9	47.8	28.4	67	
종교	무교	70.35±12.89	.568 (.637)	22.8	54.4	22.8	57	1.234(.975)
	불교	70.53±10.80		20.0	60.0	20.0	15	
	기독교	73.12±11.05		17.5	52.5	30.0	40	
	천주교	73.66±13.22		25.0	50.0	25.0	12	
경제상태	상	69.33±8.62	1.773 (.174)	33.3	66.7	0.0	3	3.988(.408)
	중	72.75±12.04		17.2	55.9	26.9	93	
	하	67.96±11.97		32.1	46.4	21.4	28	
주거형태	일반	71.05±12.25	.073 (.974)	22.0	54.2	23.7	59	1.338(.970)
	상가	72.25±12.44		0.0	75.0	25.0	4	
	다가구	72.00±11.91		25.0	50.0	25.0	4	
	아파트	72.07±12.13		21.1	52.6	26.3	57	

\*: p <0.05

##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수준 점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수준 점수는 표 7과 같다.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수준 점수는 Likert 3점 척도로 90점 만점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62.73 \pm 13.29$ 점 이었으며 55점 하위권, 56점부터 75점이하를 중위권, 76점이상 상위권으로 분석한 결과 중 중위권 54.0%로 가장 높았으며, 상위권 25.0%, 하위권 21.0% 순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주거형태(F or  $t=3.058$ ,  $p=.031$ )에서만 유의성이 있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63.37 \pm 11.76$ 로 여학생  $62.63 \pm 13.55$ 보다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 중위권이 50.9%로 남학생의 68.8%보다 매우 낮게 조사되었으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형제자매수는 3명 이상  $64.79 \pm 12.08$ 로 가장 높았으며, 1명  $62.66 \pm 12.28$ , 2명이  $59.17 \pm 15.61$ , 무가  $54.50 \pm 12.9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중학교졸업  $62.92 \pm 12.87$ 로 가장 높았으며,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중위권에서 대학졸업 이상 73.7%로 가장 높고 초등학교 졸업 52.9%, 고등학교 졸업 50.8%, 중학교 44.4% 순이었다. 보호자의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이  $63.62 \pm 12.99$ 로 가장 높았고, 종교에서는 천주교가  $65.25 \pm 12.02$ , 경제상태에서는 중위권이  $63.11 \pm 13.67$ 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형태별로는 다가구 주택이  $65.25 \pm 13.20$ 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주택  $63.40 \pm 13.61$ , 아파트  $63.21 \pm 11.86$ 점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인 반면, 상가주택에서는  $43.50 \pm 18.69$ 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 8. 응급처치 관련 변수에 따른 안전의식에 대한 지식수준

응급처치 관련 변수에 따른 안전의식에 대한 지식수준은 표 8과 같다.

응급처치 관련 변수에 따른 안전의식에 대한 지식수준은 응급처치법 교육습득원(F or  $t=3.062$ ,  $p=.030$ )에서만 유의성이 있었다. 응급처치필요성을 느낀 경험 유무별로는 있다가  $71.93 \pm 11.62$ 로 없다  $69.68 \pm 14.40$ 보다 높았으며, 응급처치법 교육습득원에서는 마스크이  $74.17 \pm 12.00$ 으로 가장 높았고 상위권에서 독학이 11.1%로 가장 낮았다. 응급처치법 정보 습득원으로는 TV가  $72.62 \pm 10.96$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응급처치법 교육시기별로는 중학교가  $72.42 \pm 10.74$ 로 가장 높았다.

## 9. 응급처치 관련 변수에 따른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수준

응급처치 관련 변수에 따른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수준은 표 9와 같다.

응급처치 관련 변수에 따른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수준은 응급처치법 교육 습득원(F or  $t=3.062$ ,  $p=.030$ )에서만 유의성이 있었다. 응급처치 필요성을 느낀경험 유무별로는 있다가  $63.15 \pm 13.28$ 로 없다 보다 높았으며, 응급처치법 교육 습득원은 독학이  $66.00 \pm 8.00$ 으로 높았으며 배운적 없음이  $58.03 \pm 14.27$ 로 가장 낮았다. 응급처치법 정보 습득원은 잡지가  $69.50 \pm 9.98$ 로 가장 높았고, 응급처치법 교육시기는 유치원  $64.83 \pm 13.85$ , 중학교  $64.65 \pm 10.08$ , 초등학교  $61.67 \pm 14.36$ , 고등학교  $55.70 \pm 11.30$ 순 이었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2003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광주광역시 소재의 대학생중 비보건계열학과 학생 124명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에 대한 지식 수준과 응급처치 지식 수준 정도를 파악하여 교육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표 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수준 점수

일반적특성	구분	M±S.D 62.73±13.29	F or t (p)	하	중	상	계	$\chi^2(p)$
				21.0(26) <55	54.0(67) 56-75	25.0(31) 76 <	100.0 (124)	
성별	남	63.37±11.76	.206 (.837)	18.8	68.8	12.5	16	1.802(.406)
	여	62.63±13.55		31.5	50.9	17.6	108	
학년	1학년	62.37±14.06	-.316 (.753)	30.3	50.0	19.7	66	.921(.631)
	2학년	63.13±12.47		29.3	56.9	13.8	58	
형제자매수	무	54.50±17.21	1.772 (.156)	75.0	0.0	25.0	4	14.579(.024)*
	1명	62.66±12.28		29.2	58.3	12.5	24	
	2명	59.17±15.61		41.4	31.0	27.6	29	
	3명이상	64.79±12.08		22.4	64.2	13.4	67	
현거주지	대도시	62.51±12.90	1.038 (.357)	25.0	63.3	11.7	60	10.931(.027)*
	중소도시	61.68±13.62		38.0	46.0	16.0	50	
	읍·면·지역	67.42±13.77		21.4	35.7	42.9	14	
어머니의 교육정도	초졸	62.66±15.96	.015 (.997)	33.3	47.6	19.0	21	1.931(.926)
	중졸	62.92±12.87		35.0	47.5	17.5	40	
	고졸	62.73±12.68		24.6	59.6	15.8	57	
	대졸이상	61.66±15.30		33.3	50.0	16.7	6	
아버지의 교육정도	초졸	62.29±15.78	.062 (.980)	29.4	52.9	17.6	17	5.894(.435)
	중졸	63.18±12.98		40.7	44.4	14.8	27	
	고졸	62.98±13.49		27.9	50.8	21.3	61	
	대졸이상	61.68±11.60		21.1	73.7	5.3	19	
보호자직업	농·축·산	61.71±15.12	.145 (.865)	32.1	57.1	10.7	28	1.737(.784)
	판매서비스	63.62±12.99		24.1	58.6	17.2	29	
	행정사무	62.77±12.78		31.3	49.3	19.4	67	
종교	무교	62.12±13.28	.276 (.842)	33.3	52.6	14.0	57	9.871(.130)
	불교	64.40±15.08		33.3	26.7	40.0	15	
	기독교	62.22±13.33		27.5	57.5	15.0	40	
	천주교	65.25±12.02		16.7	75.0	8.3	12	
경제상태	상	62.00±6.55	.155 (.857)	0.0	100.0	0.0	3	5.444(.245)
	중	63.11±13.67		29.0	50.5	20.4	93	
	하	61.53±12.78		35.7	57.1	7.1	28	
주거형태	일반	63.40±13.61	3.058 (.031)*	33.9	47.5	18.6	59	6.704(.349)
	상가	43.50±18.69		75.0	25.0	0.0	4	
	다가구	65.25±13.20		25.0	50.0	25.0	4	
	아파트	63.21±11.86		22.8	61.4	15.8	57	

\*: p < .05

표 8. 응급처치 관련 변수에 따른 안전의식에 대한 지식수준

구분	M±S.D	F or t(p)	하	중	상	계	$\chi^2(p)$	
			29.8(37) <60	53.2(66) 61-79	16.9(21) 80 <	100.0 (124)		
응급처치	필요성을 느낀	경험유무						
	있다	71.93±11.62	.747	20.0	54.3	25.7	105	.454(.797)
	없다	69.68±14.40	(.457)	26.3	52.6	21.1	19	
응급처치법	교육 습득원							
	학교	72.79±11.80		17.2	53.4	29.3	58	3.354(.763)
	매스컴	74.17±12.00	3.062	21.4	50.0	28.6	28	
	독학	63.55±12.43	(.030)*	33.3	55.6	11.1	9	
	배운적없음	69.17±11.64		24.1	58.6	17.2	29	
응급처치법	정보 습득원							
	TV	72.62±10.96		17.2	56.9	25.9	58	5.018(.542)
	신문	69.22±14.18	.323	44.4	22.2	33.3	9	
	잡지	72.00±11.34	(.809)	25.0	50.0	25.0	4	
	기타	70.83±13.07		20.8	56.6	22.6	53	
응급처치법	교육시기							
	유치원	72.08±10.76		19.4	50.0	30.6	36	5.167(.523)
	초등학교	72.17±12.82	1.229	23.1	48.1	28.8	52	
	중학교	72.42±10.74	(.302)	15.4	69.2	15.4	26	
	고등학교	64.60±14.94		30.0	60.0	10.0	10	

표 9. 응급처치 관련 변수에 따른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수준

구분	M±S.D	F or t(p)	하	중	상	계	$\chi^2(p)$	
			21.0(26) <55	54.0(67) 56-75	25.0(31) 76 <	100.0 (124)		
응급처치	필요성을느낀	경험유무						
	있다	63.15±13.28	.823	28.6	53.3	18.1	105	.915(.633)
	없다	60.42±13.50	(.412)	36.8	52.6	10.5	19	
응급처치법	교육 습득원							
	학교	63.89±13.09		24.1	55.2	20.7	58	10.401(.109)
	매스컴	64.14±13.45	2.668	25.0	57.1	17.9	28	
	독학	66.00±8.00	(.017)*	11.1	77.8	11.1	9	
	배운적 없음	58.03±14.27		51.7	37.9	10.3	29	
응급처치법	정보 습득원							
	TV	62.44±12.84		34.5	50.0	15.5	58	3.126(.793)
	신문	63.55±15.12	.371	22.2	66.7	11.1	9	
	잡지	69.50±9.98	(.774)	0.0	75.0	25.0	4	
	기타	62.39±13.88		28.3	52.8	18.9	53	
응급처치법	교육시기							
	유치원	64.83±13.85		27.8	55.6	16.7	36	5.689(.459)
	초등학교	61.67±14.36	1.543	34.6	44.2	21.2	52	
	중학교	64.65±10.08	(.207)	19.2	65.4	15.4	26	
	고등학교	55.70±11.30		40.0	60.0	0.0	10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응급처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경험을 보면 87.5%이었으며, 형제자매수( $\chi^2=7.482$ ,  $p=.048$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응급처치법 교육의 습득원은 학교가 46.8%로 가장 높았고, 배운적 없음 23.4%, 마스크 22.6%, 독학 7.3% 순이었다. 특성별로 보면 성별( $\chi^2=30.230$ ,  $p=.000$ ), 학년( $\chi^2=10.821$ ,  $p=.013$ ), 어머니의 교육정도( $\chi^2=18.932$ ,  $p=.02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응급처치법 정보의 습득원은 TV가 46.8%로 가장 높았고, 기타 42.7%, 신문 7.3%, 잡지 3.2% 순이었다.

4. 응급처치법 교육의 가장 적절한 시기에 대한 견해는 초등학교에서 41.9%로 가장 높았고, 유치원 29.0%, 중학교 21.0%, 고등학교 8.1%순이었으며, 대상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chi^2=9.689$ ,  $p=.021$ ), 학년( $\chi^2=19.661$ ,  $p=.000$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 안전의식에 대한 지식수준 점수는 Liket 5점 척도로 100점 만점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71.58 \pm 12.05$ 이었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현거주지(F or t=3.894,  $p=.023$ )에서만 유의성이 있었다.

6.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수준 점수는 Liket 3점 척도로 90점 만점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62.73 \pm 13.29$ 점이었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주거형태(F or t=3.058,  $p=.031$ )에서만 유의성이 있었다.

## 2. 제언

대학생들은 응급처치에 대한 필요성을 중고등 학생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안전의식과 응급처치 지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각종 응급상황으로 부터 인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으로 대학내 교과과정 중 안전 사고예방과 응급처치 과목을 독립시켜 실제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1. 이명선: 중등학교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국무총리실 안전관리 개선기획단, 2001.
2. Richard A. Narad: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 Design. Emerg Med. Clinic of North AMERICA, 8, 4-5, 1990.
3. 조동란, 전경자: 사업장 응급처치 인력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간호학회지 제5권, 1996.
4. 김대성, 문옥륜: 중소기업 사업장의 응급의료 서비스 조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보건연구소 논총, 1995.
5. 김훈철: 중학교 응급처치 교육실태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6. 한성현: 일부 고등학생들의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사고 실태와 관련 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 학회지, 제19권 제1호, 2002.
7. 박지은, 이명선: 학교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안전 관리구조 실태조사, 보건교육건강증진 학회지, 제19권 제2호, 2002.
8. 홍경용: 중고등학생 응급처치 지식수준 실태조사,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Abstract=

## Actual Survey of College Students' Knowledge of First Aid

Hayrran Kwon·Ji-Yön Chöng\*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level of safety consciousness and first aid knowledge of 124 college students who attend non-public health departments in Gwangju from April 1 to 30, 2003 and apply the results of the study to curriculu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On experiences of need of first-aid, 87.5% of respondents said 'yes'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their siblings( $\chi^2 = 7.482$ ,  $p = .048$ ).
2. Sources of education of first aid were mostly at school(46.8%), no education(23.4%), through mass communication(22.6%) and by themselves(7.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characteristics in sex( $\chi^2 = 30.230$ ,  $p = .000$ ), year( $\chi^2 = 10.821$ ,  $p = .013$ ) and mother's education( $\chi^2 = 18.932$ ,  $p = .025$ ).
3. Sources of information of first aid were mostly through TV(46.8%), followed by others (42.7%), newspapers(7.3%) and magazines(3.2%).
4. On the opinions of the most suitable period for educating first aid, elementary school was highest(41.9%), followed by kindergarten(29.0%), middle school(21.0%) and high school (8.1%)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by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sex( $\chi^2=9.689$ ,  $p= .021$ ) and year( $\chi^2=19.661$ ,  $p= .000$ ).
5. Score of knowledge level of safety consciousness was mean  $71.58 \pm 12.05$  based on Likert 5-point scale with a full mark of 100 points and there was a significance only in current residence of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F or  $t=3.894$ ,  $p=.023$ ).
6. Score of knowledge level of first aid was mean  $62.73 \pm 13.29$  based on Likert 3-point scale with a full mark of 90 points and there was a significance only in residential type of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F or  $t=3.058$ ,  $p= .031$ ).

Although college students felt needs of first aid more th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t was found that their actual safety consciousness and knowledge level of first aid were low. Therefore, knowledge and ability should be developed to save human life from all kinds of emergencies and safety accident and first aid subjects should be separated in college curriculum and opportunity for actual education should be given.

---

\* 경문소속